

홍성 교도소를 다녀왔다.

No

Date

2009년 7월 23일

약간 흥분되어 들뜬 마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지나 고속도로를 달리며 항박이 펼쳐지는
 풍경은 감상할 틈도 없이 우린 예매 시간이 불려야 할
 흥분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470장 내 평생이 가는데"
 을 부르며, 음향, 박자, 모든 정화하진 않겠지만 사모님께
 지킴에 따라 열심히 한바, 두번, 세번 연습하면서
 가슴씩 나아지려 있는것을 느끼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교정선로 사육림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비비 지식과 우정에
 편견을 지니 교도소를 향하여 들이갔습니다. 신분증과
 사진이 안들어간 개인정보가 입력된 컴퓨터에 학생을 바친듯
 신분증과 바뀐 출입증을 목에 걸고 청문하니 지나 또
 청문을 지나 또 청문을 지나며 점점 마음이 나도 모르게
 조여왔습니다. 람당 사랑님방에서 하 한잔을 마시러 기다리려
 있었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양 소리를 들으며 야간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예매시간을 향하여 가는동안 계속
 준비 한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들어갈 순간
 내가 상상했었던 모습과는 전혀다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기다려 주는 사냥 피아노를 반주하는 사냥, 싱가리 가운은
 입고, 앞에 나와 한양을 인도 하는 사냥, 정말
 맑고 밝은 얼굴로 한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하시겠구나 하는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옆에 짐사님은 자리에 앉으시며
 눈물로 목사님으로 꾸민시도 모습과 우리모두 함께
 한양을 드리며 주안이다 하나가 되기 마음껏 하나님께
 한양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신 부자님이 기도로 들으며 흐르는 눈물은
 생명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특송하기에 구원님이 하나님께 맞추며 언뜻했던 것보다
 훨씬 은혜롭게 한양을 드리며 스스로에게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사랑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들리지 않음 지가 여기에서 ~~제~~ ^제 ~~영~~ ^영 ~~을~~ ^을 ~~보~~ ^보 ~~다~~
 더욱 큰것을 느끼며 회개 했습니다 한양은 한양은
 소망함나 하나님께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며 안락사운
 밖으로 애라기 선포하시는 모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판에서 흘러나옴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불의 못하니
 믿기 어려웠을 믿는것이다.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를 통하여 구원이 변하는 복이 은혜이 되고
 축복이 풍로가 되자는것은 알기 되었습니다
 아버지심을 나오며 복음으로 인사하는 제순지도를 귀로 하니
 교도소문을 나서며 하나님께 만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이 안에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정박
 기쁘게 한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감사님이
 저를 대령하시며 맞이하러 오신 하나님이 사랑과
 복의선교회와 나아가시는 백성 피하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함께 하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세상을 향신하시라 우리는 홍성교도소의
 라며 오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멘.

2009년 7월 23일

강산구 김사